

농민  
의  
입장  
에서

농민·김원희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에서 농사에 전념한지 이제 6년째 접어들었다.

수지맞는 농사를 지어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농촌을 아끼고 키

워보려는 작은 學士농군의 일념이기  
에 지금까지 후회없이 의욕을 가지고  
영농에 임하고 있다.

「농약과 식물보호」지가 지난 4월  
에 창간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  
록 연륜은 짧지만 충실한 내용으로  
워어져 왔다는 점에서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 이 기회를 통해 그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너무 무리한 부  
탁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이윤을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었으니  
어려운 사정을 감수하고라도 농약이  
식량증산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꾸준한 발전을 기대한다.

현대농업은 농민들 나름대로의 높  
은 수준을 피하게 마련이므로 채산  
성 있는 농업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채산성(수익성)있는 농업을 피하  
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높이는 길밖에 없으며 이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농약과 비료가 영  
농의 필수자재임에는 틀림없는 사실  
이다.

같은 모르지만 앞으로 새로운 병  
충해의 발생은 더 많아질 것으로 생  
각되며 이에 따라 농약의 종류도 현  
재보다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러므  
로 농약의 생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약의 위험성은 더 커질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농약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약 살포「시즌」만 되면 농약공해니, 농약중독이니, 약해가 났느니, 약효가 떨어졌느니 하고 떠들석하다.

사실 농약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병해충 및 잡초만을 죽이고 그외의 작물에 대해서는 해를 주지 않아야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농약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선 선택성이 크고 화학적으로 분해가 빠르며 독성이 적은 농약이 하루빨리 개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약제조회사는 제조회사대로 시험연구기관은 연구기관대로 꾸준히 연구하여 보다 좋은 농약을 개발해주시기를 바란다.

#### ◇ 농약을 안전하게 살포했으면

그러나 이와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도 병충해를 방제하는데 반성해야 할점도 많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농약을 살포하는데 너무나도 주의를 하지 않고 살포하므로써 농약으로인한 화(禍)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영농을 부르짖는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모자, 마스크, 긴팔상의, 긴바지,

고무장갑 등 살포 복장을 갖추고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농촌에서 이같은 안전요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는 같은 농민의 입장에서 의문이다.

#### ◇ 방제시기는 놓치지 말아야

올해는 이상기후 때문에 농약을 살포하기가 무척 어려운 해였다.

약을 뿌려야 좋은 것인지, 안뿌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비가 멈춘틈을 타서라도 적기에 방제를 한 농가와 안뿌린 농가와는 수확시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도 비가 온다고 해서 작물의 생육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가 와서 약이 유실되고 효과가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때를 놓친 상태에서 방제를 하다보니 농약은 농약대로 들어가도 효과는 제대로 겨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약이 약효가 없다는 아우성을 치기도 하는데 농약회사를 탓하기이전에 무언가 반성해야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도 우리 농민들은 말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들 하지만 실천하

는데는 인식하여 가장 기본적인 영농상식도 지키지 않고 있어 깊이 반성해야 될것 같다.

요즘 농약중에는 그자체에 결함이 없는데도 한가지 약제를 계속 사용함으로 해서 효과가 감퇴되는 것이 있는것 같다. 그 원인은 병원균이나 해충에 대해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농약은 기상여건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도 있고 조제할 때 미숙하다거나, 살포량의 많고 적음, 살포방법 및 시기의 잘못으로 약효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약해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약효가 없다고 물 한말에 사용약량의 몇배를 희석하여 뿌린다거나, 섞어서 뿌리면 좋다고 몇가지 농약을 혼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살포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간다.

#### ◇ 농약에 대한 인식바뀐야

우리나라에서는 농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낮은것 같다.

특히 농약을 늘 사용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경각심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희생이 큰것 같다.

농약을 잘못 사용하여 1년간 애써 가꾼 작물을 망치는 등 아직까지도 이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한심스럽거니와 우리 농민들은 「농약은 독약」이라는 인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솔직히 말해 농약을 몇십년간 사용해오면서 농약사용이 영농의 필수조건이 된 오늘날에도 갖가지 형태의 農藥禍가 잇달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 요즘 시중에 나오는 농약이 비교적 약효와 성분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 표지의 색깔도 용도별로 달리하고 있는데다 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기때문에 농민들이 조금만 주의하면 쉽게 農藥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있다.

#### ◇ 잔류성 없는 농약개발 기대

이 기회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農藥禍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약 사용 설명서대로 정확히 농약을 다루는 사용자의 지혜가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겠으며 시골 구석구석까지 농약의 올바른 사용법을 철저히 계몽하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같은 올바른 사용법의 제도는 정부에서 주관하기 보다는 농약공업협회 같은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제조회사나 연구기관에서도 잔류독성이 없는 농약을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 부탁드립니다.